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Mediation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김진경¹ 윤혜주²

Jin Kyung Kim¹ Hye Ju Yun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a total of 327 mothers with young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3-5 years that were attending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Gyeonggi-do, Gangwon-do, and the Busan region. After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and young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complete mediation and partial mediation models b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Results: The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In other words,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were important variables for young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revention of problems caused by young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by exploring the path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which have effects on young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key words mo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young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¹ 제1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² 교신저자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e-mail : hyeju7435@naver.com)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개인적인 업무처리나 휴식 및 자녀를 돌보는데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많은 디지털콘텐츠가 개발되어서(유소연, 김희광, 신재욱, 2012) 부모가 교육적 목적 외에 식사나

휴식을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자녀에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여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란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무선인터넷 기능 등 컴퓨터 기능이 보강된 고급형 휴대전화를 말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많은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습목적에 맞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유아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학습할 경우 그 성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다(유소연 등, 2012). Lamm 등(2014)은 유아가 사회적 기술을 함양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이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은 유아의 사고, 계획, 관찰, 문제해결, 읽기, 언어, 수학 등 인지발달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Lieberman, Bates, & So, 2009), 유아의 눈과 손의 협응력이 향상되었다(Shimizu, Yoon, & McDonough, 2010). McPake, Plowman 그리고 Stephen(2013), O'Mara와 Laidlaw(2011)에 의하면, 스마트폰에 등장하는 미술적 요인을 활용한 방법이 취학 전 유아의 이야기 생성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즉, 취학 전 유아의 디지털 경험은 창의적인 능력을 확장시키고 의사소통 발달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활용 프로그램 효과에서도 유아의 과학적 사고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유구중, 2012). 이와 같이, 스마트폰 활용한 활동이 유아의 흥미와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교육적 효과가 검증된 연구들도 있기에 유아교육에 있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의 활용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의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유아동의 22.9%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3-9세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뚜렷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18.8%)보다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더 높았다. 스마트폰 출현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났는데,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집착하여 이용하다가 신체, 심리,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스마트폰 중독이며, 이는 일종의 행위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함으로 인하여 금단 내성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생기는 상태이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유아들은 부정적인 특성인 과잉행동, 충동성, 부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지형, 문혜련, 2017), 자아중심성이 지나치게 강해 조망능력을 학습하지 못하여 반사회적인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조복희 등, 2014). 또한 좌뇌의 기능만이 활성화되어 우뇌의 발달을 지연시켜 뇌의 불균형이 일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방효국, 김낙홍, 2013; 임경심, 김수향, 홍혜경, 2014). 이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보고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사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 예방과 올바른 사용법 및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이용 시기가 빠를수록 우울, 불안, 공격성 수준이 높았고, 스마트폰 이용을 많이 할수록 공격성이 높았다(김수정, 정익중, 2016). 설셋별, 이혜원, 이경숙 그리고 김명식(2017) 연구에서도 영상물 과다노출이 영유아의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 문제와 사회성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충동성 및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용선(2013)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고, 유아가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

었다. 영유아가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요인으로 조준오와 김은정(2013), Atli, Gunuc, Kuss 그리고 Baran(2019)에서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등이 논의되어 왔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양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말한다(Abidin, 1992).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육체적 피로감을 주기도 하며, 부모의 개인적인 생활과 여가를 제약하는 등 스트레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박복매, 문혁준,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는 더 이른 시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더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류미향, 201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권미경, 박현숙, 유주희, 한경옥, 2016; 박소영, 2015; 박정아, 현은자, 2018),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박정아, 현은자, 2018; 서소정, 박주영, 김진희, 2014; 현은자, 조메리명희, 조경선, 김태영, 2013).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가질 때, 어머니 본인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에 취약할 경우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되며, 스마트폰 사용은 현실을 회피하는 방편이 되므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Shiffman(1982)은 중독 행동과 스트레스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이 특정 행동에 지나친 몰입을 보이는 경향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17년에 여성(19.3%) 과의존위험군이 남성(18.0%)보다 높았고, 2018년에도 여성(20.1%) 과의존위험군이 남성(18.3%)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이는 여성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군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유아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높다. 즉,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은 어머니의 정신건강 외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및 정서, 문제행동,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정원, 김승욱, 홍기묵, 2011; 김인숙, 김도연, 2017; 서혜성, 김연하, 2014).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향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휴대폰과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Butt & Phillips, 2008).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은 경우 유아도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김민희, 2015; 조경서, 김은주, 2016; Abbott et al., 2016; Carson, Stearns, & Janssen, 2015).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은 어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은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박진아, 이경숙, 전연진, 2014; 현은자, 박은미, 조메리명희, 김태영, 2013). 김이영과 최윤희(201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인식과 사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미디어 중독은 우울적 특성을 지니며, 이로 인하여 유아는 결핍된 애정 욕구를 장난감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시도한다(이보연, 2016; Bank et al., 2012). 유아는 애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장난감 대신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화려한 그래픽, 음향 효과 등에 노출되어, 이에 대한 강한

중독성을 느껴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에 대한 어머니의 올바른 사용 예방 차원에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이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유아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보여주거나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이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단선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어떤 매개역할을 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변인에 대해 심층적 모색을 하고자 한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이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 관계 이해를 돕는데 기여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아 스마트폰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을 통해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인과적인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의 상호관련성과 경로를 통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부모교육과 더불어 어머니 스마트폰 사용습관 및 나아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연령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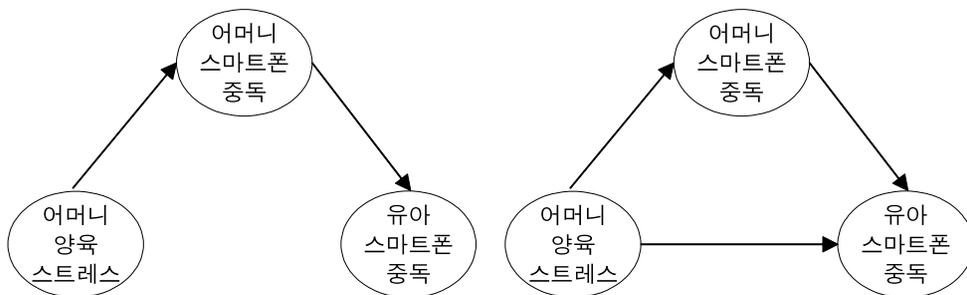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완전매개모형(좌), 부분매개모형(우)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강원도, 부산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 327명의 어머니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한 내용과 같다.

표 1. 일반적 배경 (N = 327)

구분	N(%)	구분	N(%)
어머니 학력		유아연령	
전문대 졸업	145(44.3)	만 3세	103(31.5)
대학교 졸업 이상	182(45.7)	만 4세	111(33.9)
취업여부		만 5세	113(34.6)
맞벌이	173(52.9)	어머니 연령	
외벌이	154(47.1)	40대 미만	167(51.1)
유아 스마트폰 시작 시기		40대 이상	160(48.9)
12개월 이전	21(6.4)	유아 스마트폰 사용횟수	
13~24개월 이전	88(26.9)	안한다	27(8.3)
25~36개월 이전	78(23.9)	주 1~2회 사용	134(41.0)
36개월 이후	116(35.5)	주 3~4회 사용	70(21.4)
사용하지 않음	24(7.3)	주 5회 이상 사용	96(29.4)

2. 연구도구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 Abidin(1995)를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 도구(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 2008)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조작적 정의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부모의 고통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1~12	12	.85
역기능적 상호작용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부모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받지 않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13~24	12	.78
까다로운 아동	부모가 다루기 어려운 아동의 행동	25~36	12	.85
	전체	1~36	36	.91

2)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성인 스마트폰 자가진단’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3.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조작적 정의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일상생활 장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직장, 가정에서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	1, 5, 9, 12, 15*	5	.67
가상세계 지향성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서 관계 맺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관계 맺는 것을 즐겁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상태	2, 6	2	.32
금단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	4*, 8, 11, 14	4	.79
내성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 나중에 많이 사용해도 만족감이 없는 상태	3, 7, 10*, 13	4	.77
전체		1~15	15	.88

*역문항

3) 유아 스마트폰 중독

유아 스마트폰 중독을 검사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에서 개발한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부모관찰자 진단 척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유아의 어머니가 작성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4. 유아 스마트폰 중독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조작적 정의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현재성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사고와 정서 및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정도	1, 2, 3, 4, 5	5	.86
충동, 강박적사용	스마트폰을 수시로 꺼내 확인하며 알림 기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도	6, 7, 8, 9	4	.65
금단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 초조, 짜증을 내는 정도	10, 11, 12, 13, 14	5	.63
내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많은 시간을 더 사용하게 되는 정도	15, 16, 17, 18, 19*	5	.73
문제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와 비행 및 일탈 정도	20, 21, 22, 23, 24, 25	6	.90
대인갈등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과 갈등 정도	26, 27, 28, 29, 30*	5	.73
전체		1~30	30	.94

3. 연구절차

본 연구도구의 적절성과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연구는 2019년 2월 초 경기도 유치원, 어린이집 만 3, 4, 5세 유아의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문항 중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원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3월에 경기도, 강원도, 부산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을 통해 370부를 배부하여 346부 회수(93.5%)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 제외하고 최종 327부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연구의 내용과 응답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21.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고,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 측정변인들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가설적 매개모형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상관관계 결과에 기초하여 설정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구조의 적합도를 평가한 후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그리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모델적합도는 χ^2 , CFI(Comparative Fit Index), 상대적 적합지수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등을 사용하였다. 이 지표들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과 더불어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에(이선남, 이경옥, 2015) 선택되었다.

다섯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지니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변수로 경로계수 및 직·간접적 경로 효과를 분석·해석하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방법을 적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유아 연령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전체 평균과 하위요인 모두 유아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유아의 연령별 스마트폰 중독 차이 $M(SD)$, ($N = 327$)

변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전체	F
현재성	1.71(.60)	1.77(.58)	1.78(.52)	1.75(.56)	.49
충동, 강박적사용	1.67(.56)	1.65(.51)	1.56(.50)	1.63(.52)	1.45
금단	1.53(.48)	1.55(.44)	1.55(.44)	1.54(.45)	.04
내성	1.91(.55)	2.03(.59)	1.94(.54)	1.96(.60)	1.36
문제	1.48(.52)	1.54(.47)	1.46(.48)	1.50(.49)	.82
대인갈등	1.72(.48)	1.76(.48)	1.70(.45)	1.73(.47)	.46
전체	1.67(.44)	1.72(.42)	1.66(.41)	1.68(.42)	.51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 스마트폰 중독의 기술통계 분석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의 평균은 최소 1.50에서 최대 2.56, 표준편차는 최소 .41에서 최대 .64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13~1.01의 분포로 2.0보다 작고, 첨도는 -.94~4.29의 분포가 나타나 7.0보다 작아서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 스마트폰 중독 기술통계 ($N = 327$)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부모의 고통	1.00	4.25	2.56	.64	.11	-.23
역기능적 상호작용	1.17	3.17	1.73	.41	.89	.59
까다로운 아동	1.00	3.75	2.09	.56	.43	-.39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전체	1.25	3.36	2.13	.44	.33	-.43
일상생활 장애	1.00	3.40	1.97	.49	-.04	-.42
가상 세계 지향성	1.00	5.00	1.60	.52	1.01	4.29
금단	1.00	3.00	1.72	.52	.11	-.91
내성	1.00	3.25	2.07	.55	-.13	-.60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전체	1.00	2.93	1.92	.44	-.12	-.78
현재성	1.00	3.40	1.75	.56	.37	-.59
충동, 강박적 사용	1.00	3.50	1.65	.53	.45	-.26
금단	1.00	2.80	1.54	.45	.37	-.94
내성	1.00	4.00	1.97	.57	.27	.01
문제	1.00	4.00	1.50	.49	.71	.61
대인갈등	1.00	3.00	1.73	.47	.15	-.80
유아 스마트폰 중독 전체	1.00	2.77	1.68	.42	.24	-.94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분석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 ($N = 327$)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 스마트폰 중독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35***	1	
유아 스마트폰 중독	.42***	.41***	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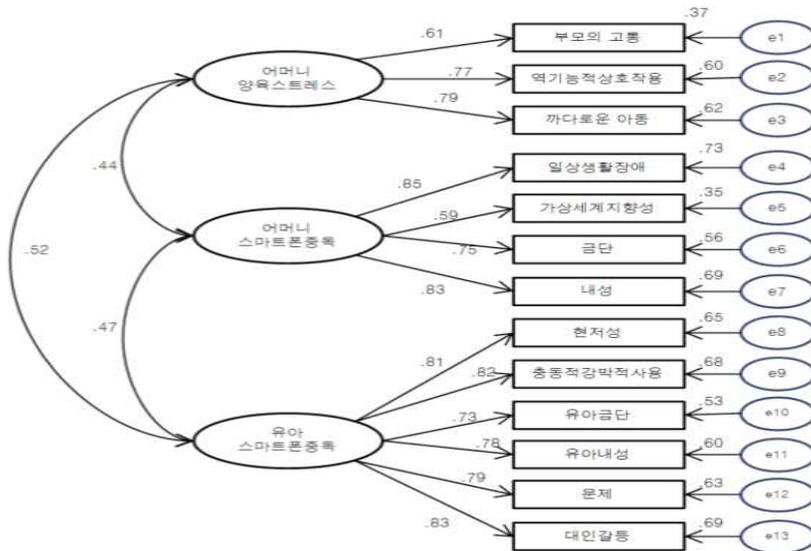
표 7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상관을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전체 간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35, p < .001$). 즉,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 전체 간의 관계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r = .42, 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전체와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전체 간의 관계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r = .41, p < .001$). 이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유아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4. 측정모델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은 하위척도를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각 도구들을 잠재변인으로 한 측정모형을 구성하여 모형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초기 측정모델의 분석결과는 $\chi^2(62) = 185.11, p < .000, \chi^2/df = 2.99, TLI = .93, CFI = .94, RMSEA = .08(.07, .09)$ 로 측정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표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MSEA 값과 신뢰구간도 적절하였다. 다음으로 모수치 추정값을 살펴보면,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59~.85로 나타났으며, 각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44~.52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고, 각 잠재변수들이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측정변인들이 충분한 수렴적인 타당성을 지님과 동시에 잠재변수들 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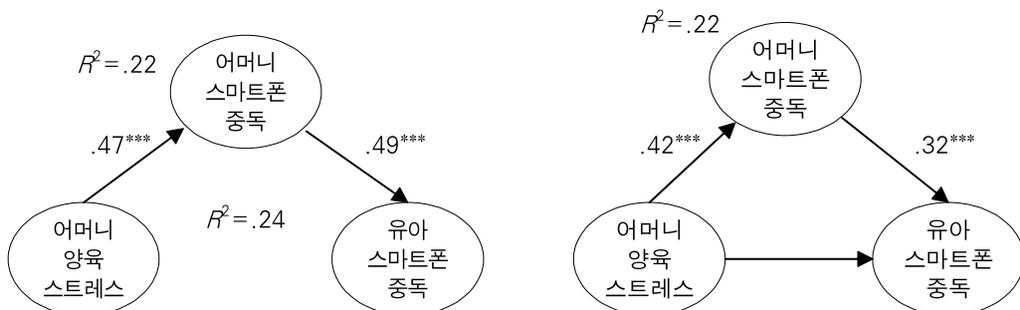


$\chi^2(62) = 185.11, p < .000, \chi^2/df = 2.99, TLI = .93, CFI = .94, RMSEA = .08(.07, .09)$

그림 2. 측정모델 분석 결과

5.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분석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하였다. 분석한 두 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으며,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8과 같으며 최종이론모형은 그림 4로 나타났다.



*** $p < .001$.

그림 3. 완전매개모형(좌)과 부분매개모형(우)

표 8.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의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비교 (N = 327)

모델	χ^2	df	χ^2/df	TLI	CFI	RMSEA
완전매개모형	218.33	63	3.47	.91	.93	.09
부분매개모형	185.11	62	2.99	.93	.94	.08

완전매개모형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을 거쳐 유아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나타낸 모형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 간의 직접경로가 제거된 간명모형을 의미한다.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63) = 218.33, p < .000, \chi^2/df = 3.47, TLI = .91, CFI = .93, RMSEA = .09(.08, .10)$ 로 나타났다.

반면, 부분매개모형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을 거쳐 유아 스마트폰 중독으로 간접경로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 간의 직접경로를 포함한 포화모형을 의미한다.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62) = 185.11, p < .000, \chi^2/df = 2.99, TLI = .93, CFI = .94, RMSEA = .08(.07, .09)$ 로 나타났다.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Delta \chi^2(1) = 163.27(CV = 3.841)$ 으로 완전매개모형보다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함과 동시에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스마트폰 중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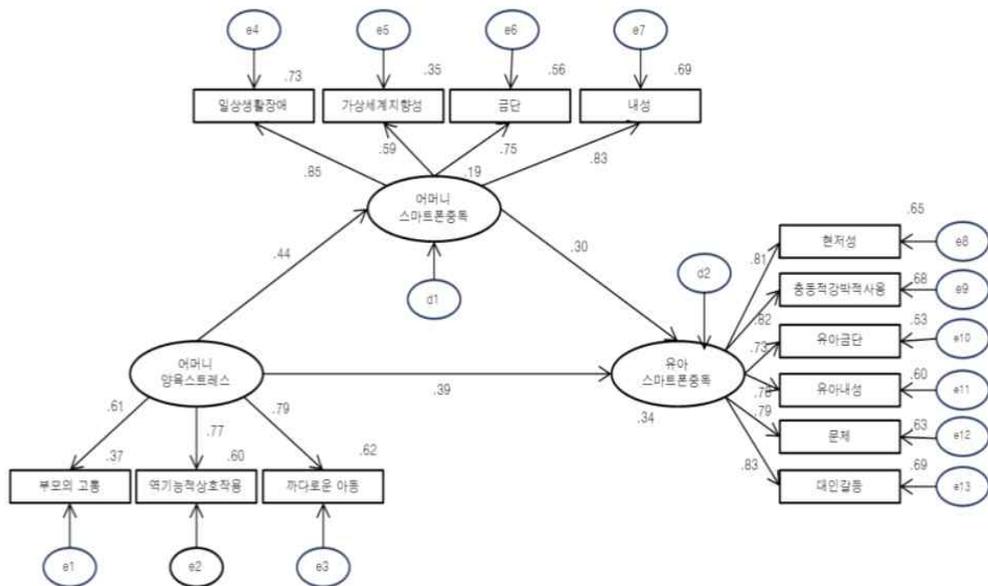


그림 4. 최종이론모형

6. 부분매개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및 직·간접적 경로의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분매개모형 모델적합도에 기초하여 각 변인들 간 표준화 경로계수와 유
의수준 및 각 변인들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부분매개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직·간접적 효과분석 (N = 327)

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S.E	C.R	R ²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44***	.44***	-	.07	6.37	.19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 유아 스마트폰 중독	.30***	.30***	-	.07	4.62	.3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 유아 스마트폰 중독	.39***	.52***	.13***	.07	5.50	

***p < .00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
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 스마트폰 중독을 직접적으로($\beta = .39, p < .001$) 설명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을 거쳐 간접적으로도($\beta = .13, p < .001$) 유아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
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에 의해 유아 스마트폰 중독의 34%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 스마
트폰 중독은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
의 스마트폰 중독 간 상관관계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모형을 비교하였
고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령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서 차
이가 없었다. 노운서(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욕구 반영으로 인하여 만 3세가 만 4,5세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이용시기가 빠를수록 유아의 공격성이
높았다(김수정, 정익중, 2016). 반면, 조안나와 고영자(2013)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미

디어 사용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었는데,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시기가 이미 유아기 초기로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둘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박소영, 2015; 박정아, 현은자, 2018; 서소정 등, 2014; 서혜성, 김연하, 2014; 윤정민, 홍정순, 2019; 이훈, 장수미, 2016)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현은자 등(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고, 그 사용이 과해지면 어머니에게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은 정적 상관관계, 즉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 영향을 미친 박정아와 현은자(2018)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는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이 유아 스마트폰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과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유아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이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Tan, Hartanto, Toh, & Yang, 2019)와 일치한다. 김인숙과 김도연(2017)의 연구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는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아지면, 학령 전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이 높아졌다. 간접적으로는 매개변인인 부부갈등,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다시 학령 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높아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유아는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어, 놀이감 중에서도 유아에게 빠른 반응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어머니 자신을 포함하여 유아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의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Bank 등(2012)은 어머니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이용이 어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본모기를 제시하여 가족 모두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유아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스마트폰 없이 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놀이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인인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이 종속변인인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 역시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권미경 등, 2016; 박소영, 2015)와 어

머니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는 더 이른 시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더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연구(류미향, 2014)와 일치한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박정아, 현은자, 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은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및 워킹맘·워킹대디 센터에 참여할 수 있다(강은진, 유해미, 윤지연, 2016). 맞벌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위하여 가정에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머니를 위한 대화 상대가 되어 줄 수도 있다. 나아가 가족 모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가족 대상 야외활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간의 협력적인 양육 및 적극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필요하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된다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을 통해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지고,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은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가질 때,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특정 행동에 과도한 중독을 보이는 성향이 쉽게 발견되고(Shiffman, 1982), 특히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Young, 1998).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유아 또한 스마트폰에 노출될 기회가 증가하고, 유아가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될수록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 즉, 어머니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소홀하거나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활동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조메리명희, 현은자, 2014), 스마트폰 중독 예방 활동을 통해 어머니들은 자기통제력을 배우게 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의 변화된 양육태도는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문제점을 바르게 인식하게 도와주기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자녀 연령에 맞는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적절한 권고가 부모들에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대부분은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권연정, 이승연, 2013). 따라서 교육적 목적으로 가정에서 유아가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부모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Buckingham(2000)도 디지털 미디어 사용자는 균형 있는 시각 및 비판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모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무조건 통제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모색하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강원도,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변인의 직·간접 효과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에 요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지도방안을 위한 일환으로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것이 자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우선적인 과제임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와 자녀간 긍정적인 관계 도모를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은진, 유해미, 윤지연 (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방안(VI):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2016-2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강정원, 김승욱, 홍기묵 (2011). 유아를 위한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15(3), 323-34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권미경, 박현숙, 유주희, 한경옥 (2016). 유아기 스마트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23(4), 121-138. doi:10.15284/kjhd.2016.23.4.121
- 권연정, 이승연 (2013). 만 2세반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스마트기기 이용지도 양상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73-109.
- 김민희 (2015). 유아의 자기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스마트기기 중독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31-151. doi:10.14698/jkce.2015.11.133
- 김수정, 정익중 (2016). 컴퓨터, 전자게임, 스마트폰 사용이 유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0(2), 157-176.
- 김이영, 최윤희 (2015). 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매개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1), 139-158.
- 김인숙, 김도연 (2017).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학력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아시아교육연구**, 18(2), 221-244.

- 나용선 (2013).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3), 31-53.
- 노운서 (2009). 만 3-5세 유아의 컴퓨터게임 이용 실태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8(2), 43-64.
- 류미향 (2014).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어머니 인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탐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6, 307-329.
- 박복매, 문혁준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10), 11-22.
- 박소영 (201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실태 및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아, 현은자 (2018).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의 공격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구조적 관계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2), 219-248. doi:10.22154/JCLE.19.2.9
- 박진아, 이경숙, 전연진 (2014).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 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1), 55-70. doi:10.18205/kpa.2014.19.1.003
- 방효국, 김낙홍 (2013). 만 5세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사용실태 및 게임 과몰입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8(6), 43-64.
- 서소정, 박주영, 김진희 (2014. 3). 유아 및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유아의 주의집중력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한국보육학회 2014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서울.
- 서혜성, 김연하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중독 결정요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5(5), 1-14. doi:10.5723/KJCS.2014.35.5.1
- 설셋별, 이혜원, 이경숙, 김명식 (2017). 영유아 영상물 과다노출이 영유아의 일반 발달과 정서·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0(1), 45-58.
- 유구중 (2012). 유아교육기관 스마트폰, 태블릿 PC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의 과학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7(3), 85-110.
- 유소연, 김희광, 신재욱 (2012). 유아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에서 표현 모티브에 따른 캐릭터 선호도 분석: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만 3~6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2(3), 95-104.
- 유지형, 문혜련 (2017).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과잉행동, 충동성 및 부주의 간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1), 39-63. doi:10.22590/ecee.2017.21.1.39
- 윤정민, 홍정순 (201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다차원적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1(3), 151-174. doi:10.36431/JPE.11.3.8
- 이보연 (2016). **0-5세 애착 육아의 기적**. 경기: 예담.
- 이선남, 이경옥 (2015). 유아의 초기 발달수준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4), 381-396. doi:10.18023/kjece.2015.35.4.017

-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2013-15). 서울: 유아정책연구소.
- 이훈, 장수미 (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303-335. doi:10.15709/hswr.2016.36.3.303
- 임경심, 김수향, 홍혜경 (2014).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자기조절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203-221.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orean-Parenting Stress Index: KPSI)의 표준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3), 689-707.
- 조경서, 김은주 (2016).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스마트폰 의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3**, 77-104.
- 조메리명희, 현은자 (2014).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 활동의 효과. **유아교육연구**, **34**(5), 347-368. doi:10.18023/kjece.2014.34.5.016
- 조복희, 광혜경, 김혜순, 연미희, 이영환, 장혜자 (2014). **유아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조안나, 고영자 (2013). 가정 내 전파미디어 사용실태 및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 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1-24.
- 조준오, 김은정 (2019).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미디어중독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1189-1208.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대한민국 모바일 연감**.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나와라, 스마트폰 세상밖으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현은자, 조메리명희, 조경선, 김태영 (2013).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관계연구. **유아교육연구**, **33**(3), 207-225. doi:10.18023/kjece.2013.33.3.009
- 현은자, 박은미, 조메리명희, 김태영 (2013).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및 우울 점수와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3**(5), 181-205. doi:10.18023/kjece.2013.33.5.008
- Abbott, G., Hnatiuk, J., Timperio, A., Salmon, J., Best, K., & Hesketh, K. D. (2016).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arents' and preschoolers' physical activity and television viewing: The happy study.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13**(3), 269-274. doi:10.1123/jpah.2015-0136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doi:10.1207/s15374424jccp2104_12
- Atli, S., Gunuc, S., Kuss, D., & Baran, G. (2019). Impact of parents' technology use on 18-to 24-month-old infants' adaptive behaviors. *Adaptive Behavior*, **27**(3), 197-219. doi:10.1177/1059712319845340
- Bank, A. M., Barr, R., Calvert, S. L., Parrott, W. G., McDonough, S. C., & Rosenblum, K. (2012). Maternal depression and family media use: A questionnaire and diary analysi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208-216. doi:10.1007/s10826-011-9464-1
- Bukingham, D. (2000). *After the death of childhood: Growing up in the age of electronic media*.

- Cambridge, UK: Polity Press.
- Butt, S., & Phillips, J. G. (2008). Personality and self reported mobile phon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2), 346-360. doi:10.1016/j.chb.2007.01.019
- Carson, V., Stearns, J., & Janssen, I.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hysical activity and screen time behaviors and the behaviors of their young children. *Pediatric Exercise Science, 27*(3), 390-395. doi:10.1123/pes.2014-0214
- Lamm, C., Lambert, L., Wolfe, J., Gray, J., Barber, A., & Edwards, G. (2014). Improving socialization and emotion recognition for children with autism using a Smartphone App. In Nava R. Siltan. (Ed.), *Special and Gifted Education: Concepts, Methodologies, Tools, and Applications* (pp. 2010-2027). New York: Marymount Manhattan College. doi:10.4018/978-1-4666-5792-2.ch008
- Lieberman, D. A., Bates, C. H., & So, J. (2009). Young children's learning with digital media. *Computers in the Schools, 26*(4), 271-283. doi:10.1080/07380560903360194
- McPake, J., Plowman, L., & Stephen, C. (2013). Pre-school children creating and communicating with digital technologies in the hom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4*(3), 421-431. doi:10.1111/j.1467-8535.2012.01323.x
- O'Mara, J., & Laidlaw, L. (2011). Living in the iworld: Two literacy researchers reflect on the changing texts and literacy practices of childhood. *English Teaching: Practice and Critique, 10*(4), 149-159.
- Shiffman, S. (1982). Relapse following smoking cessation: A situational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1), 71-86. doi:10.1037/0022-006x.50.1.71
- Shimizu, H., Yoon, S., & McDonough, C. S. (2010). Teaching skills to use a computer mouse in pre-school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aping moving a mouse and eye-hand coordination.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1*(6), 1448-1461. doi:10.1016/j.ridd.2010.06.013
- Tan, Q. Y. J., Hartanto, A., Toh, W. X., & Yang, H. (2019). Commentary: Influence of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of young children on problematic behaviors and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ng self-assessment effects of parents using smartphones. *Frontiers in Psychology, 10*, 115. doi:10.3389/fpsyg.2019.00115
- Young, K. S. (1998).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1*(3), 237-244. doi:10.1089/cpb.1998.1.237

논문투고: 20.08.17
수정원고접수: 20.11.10
최종게재결정: 20.12.04